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릴 적 종이비행기를 접어 하늘 높이 신나게 날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종이비행기 날리기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계 대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바로 이 비행기가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 오래 날리기 종목에서 29.2초의 신기록을 세운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이 세계 1등 종이비행기의 비밀을 파헤쳐 어떻게 접어야 비행기를 더 오래 날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날개 면적이 넓을수록 양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양력은 종이비행기가 공중에 뜰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비행기의 날개 윗면과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 흐름의 압력 차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날개 면적이 넓으면 날개와 접촉하는 공기량이 많아져 더 큰 양력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종이비행기가 공중에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날개의 모양과 각도에 있습니다. 종이비행기가 오래 날려면 공기 소용돌이 현상을 줄여야 하는데,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끝부분을 위로 접으면 소용돌이가 줄어들어 좌우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Y자 모양을 취하며) 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접는 게 좋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날개가 수평선에서 위로 들린 각을 상반각이라 하는데, 종이비행기의 상반각은 이렇게 약 16°가 적합합니다. 그래야 비행 중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 더 오래 날 수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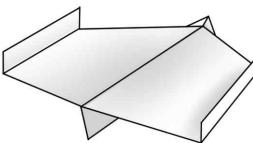
종이비행기를 오래 날리고 싶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날개 면적을 넓혀 양력을 크게 하고, 날개 끝을 위로 접고 상반각을 적절하게 만들어 비행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질문이 있군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에 다른 종목은 없느냐고요? 멀리 날리기 종목과 곡예 비행 종목 등이 있습니다. 멀리 날리기용 비행기는 날개를 길고 좁게 접어 앞부분이 뾰족한 형태가 많은데, 이는 비행을 방해하는 힘인 항력을 줄여 비행 거리를 늘립니다. 그리고 곡예용 비행기를 접을 때는 좌우 날개의 모양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공중에서 방향 전환이나 회전을 쉽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나만의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끝없는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펼쳐 보세요. 다음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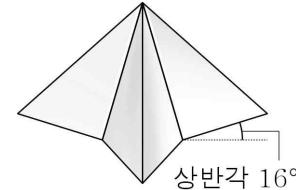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져 청중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 ④ 청중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1]



[자료 2]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이의 두께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자료 2]를 활용하여 날개의 방향에 따른 공기 흐름의 압력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자료 2]를 활용하여 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날개 각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날개의 길이와 비행 거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3. 다음은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ㄱ ~ 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래 날리기용 종이비행기
 - 날개를 넓게 만들기 → 양력 증가 ㄱ
 - 날개 끝을 위로 접기 → 양력 감소 ㄴ
 - 날개의 상반각을 적절히 설정 → 균형 유지 ㄷ
- 멀리 날리기용 종이비행기
 - 날개를 길고 좁게 접기 → 항력 감소 ㄹ
- 곡예용 종이비행기
 - 날개 모양을 다양하게 접기 → 방향 전환, 회전 용이 ㅁ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4~7] (가)는 또래 상담부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쓴 초고이다. 둘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부장: 오늘은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는 글을 동아리 소식지에싣기 위해 회의하기로 했잖아. 누리집에 올라온 사연 중 학생들이 공감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원 1: 나는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라는 고민에 공감이 되더라고.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소개해 주면 어떨까.

부원 2: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도 ‘내 희망 진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더라.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부원 3: 혹시 ‘커리어넷’ 들어 봤어? 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더라고. 무료로 진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고.

부원 1: 나는 선배들을 통해 ‘어디가’라는 진학 관련 누리집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꽤 많아.

동아리 부장: 정리하면,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커리어넷’과 ‘어디가’를 참고하면 된다는 거구나. 친구들이 두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좋겠다.

부원 2: 나는 ‘공부해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라는 고민이 눈에 띄더라. 뭔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정체기가 와 힘들다던데, 나도 1학년 때 그런 시기를 겪었어.

부원 1: 그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 줄래?

부원 2: 목표를 크게 세워 노력해 보았지만 잘 안 되어서 지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목표를 작게 쪼개 보았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실력도 목표한 만큼 늘어 있더라.

부원 3: 네 경험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

동아리 부장: 진로, 학업 이외에 다를 만한 사연이 또 있을까? 친구 관계와 관련된 고민도 많던데, 이에 대해 다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부원 3: 그럼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라는 고민을 다루면 좋겠어. 어떤 조언을 해 줄까?

부원 1: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먼저 되짚어 본 다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 봐야 할 것 같아.

부원 2: 내 생각에 이미 멀어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부원 3: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가능할 것 같아.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하고, 친구의 생각도 듣고 싶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

부원 2: 그렇구나. 멀어진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 대화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부원 1: 대화할 때는 공감하며 듣는 태도가 중요해.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친구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동아리 부장: 논의해 보니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럼 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오늘 논의한 고민의 순서대로 소제목을 달아 글을 구성해 볼게. 혹시 추가로 넣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

[A]

부원 3: 우리 동아리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 주면 좋겠어. 아직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동아리 부장: 좋아. 다음 회의 때는 내가 쓴 글을 읽고 같이 고쳐 보자.

(나)

답답한 고민, 시원하게 풀어 드려요!

설렘으로 가득 찼던 3월도 거의 지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부 부원들이 이번 달에 선정된 사연 세 가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커리어넷>에 접속하여 진로 심리 검사를 받아 보고,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직업 관련 정보를 추가로 탐색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해당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진학 정보는 <어디가>에 있으니 접속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공부해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으나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때때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정체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또한 동트기 직전의, 가장 어둡고 추운 정체기 상황일 수 있어요.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하다면 목표를 작게 쪼개서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을 거예요.

3.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 본 후에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게 좋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너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해.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 주면 좋겠어.”라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친구도 그 손을 마주 잡아 줄 거예요.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이랍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3층 또래 상담부 동아리실이나 또래 상담부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4. ‘동아리 부장’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② 회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고 있다.
- ③ 회의 참여자에게 이어서 논의할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 ④ 회의의 결과에 대한 회의 참여자의 소감을 묻고 있다.
- ⑤ 다음 회의의 화제를 예고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5. [A]에 나타난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원 1’은 ‘부원 3’의 질문에 답변하며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하고 있다.
- ② ‘부원 2’는 ‘부원 1’이 언급한 해결책이 다른 상황에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부원 3’은 ‘부원 2’의 의견에 수긍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부원 2’는 ‘부원 3’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기준 생각이 바뀌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부원 1’은 ‘부원 2’의 질문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다.

6. (가)에서 언급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 내용 순서에 따라 글을 구성하고 고민 내용을 소제목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동아리 부원의 진로 탐색 경험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연을 추가로 수집해 제시해야겠어.
- ③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한 동아리 부원의 발언을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해야겠어.
- ④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제시해야겠어.
- ⑤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또래 상담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7.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칼럼]

새로운 사람, 사건, 지식 등이 우연히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 ①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과 맞는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우연히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진로를 선택할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학습 과정에서 우연히 겪는 정체기를 극복하려면 수립한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친구의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학생의 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동네를 떠나 이사 준비를 하며 거실 한구석에 있던 ‘은재의 성장 일지’를 발견했다. 끄트머리가 누렇게 변한 책자를 펼쳐 보니 나의 어렸을 적 사진과 함께, 엄마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유치원 등원 첫날, 씩씩하게 손 흔드는 은재, 언제 저렇게 컸나…….’ 한 글자씩 눌러 적은 메모에서 엄마가 하루하루 키 가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느껴져 눈물이 흥 돌았다.

그때 내 수첩이 떠올랐다. 방에 가서 ‘2022년’이라고 적힌, 중학생 때 쓴 수첩을 집어 들었다. 펼쳐 본 수첩 속 달력에는 매일의 주요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챙겨야 할 일정이 많아지다 보니 처음에는 쏟아지는 일정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오늘, 도서관 책 반납’ 같은 간단한 일정부터 여행 같은 긴 일정까지 하나하나 메모로 써 놓고 보면 앞으로의 일정들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고는 했었다.

일상 속 소중한 추억도 짤막한 메모로 남아 있었다. 3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연습, 손가락이 아파, 힘들어.’라는 메모를 보고는 음악 수행평가를 위해 잠 못 이루고 손가락이 통통 부르를 때까지 우쿨렐레 연주를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5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완벽, 기분 최고!’라는 메모를 보고는 수많은 연습 끝에 곡을 완벽히 연주했을 때의 뿌듯함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내 삶을 차곡차곡 쌓아 둔 추억의 서랍장을 열어, 발전해 온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나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수첩 속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민재랑 싸웠다, 민재는 왜 그랬지? 속상해…, 내 잘못도 있지…’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다. 동생과 다투 후 동생이 나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썼던 메모였다. 그때 메모를 적으면서, 나는 동생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었고, 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과도처럼 요동치던 나의 마음은, 메모를 하며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물결같이 잔잔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책장 한 칸을 차지한 수첩들에 적힌 메모에는 하루하루 나아지는 나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 지금도 메모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직유법을 사용하여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③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태어를 사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사용하여 소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기 전에 구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ㄱ ~ ㅁ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 처음

- 엄마의 메모를 발견함. ㄱ

2) 중간

- 메모를 통해 일정을 계획했던 일.
→ 일정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김. ㄴ

- 메모를 통해 추억을 되돌아 본 일. ㄷ
→ 연습으로 발전해 온 나에게 기특함을 느낌. ㄹ

- 메모를 통해 감정을 추슬렸던 일.
→ 내 감정을 헤아려 준 동생에게 고마움을 느낌. ㅁ

3) 끝

- 나의 모습을 간직한 메모가 쌓이고 있음.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용언은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용언이고,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홀로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며, 본용언의 뒤에 위치하여 본용언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덧붙인다.

- ㄱ.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싶다.
ㄴ. 그녀가 사과를 한번 먹어 보다.

위에서 ㄱ의 ‘보다’와 ㄴ의 ‘먹다’는 주어의 특정한 행위를 주되게 서술하는 본용언이고, ㄱ의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는, ㄴ의 ‘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 용언이다. ‘보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용언으로, 문장에서 그 쓰임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을 넣거나, 행위나 작용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아서/어서’, ‘-고서’를 붙이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예를 들어 ㄴ의 ‘먹어 보다’에 ‘먹어 아주 보다’와 같이 부사어를 넣거나 ‘먹어서 보다’나 ‘먹고서 보다’와 같이 연결 어미를 붙이면 보조 용언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조 용언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보조 용언의 바로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다.
- ③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다.
- ④ 보조 용언은 본용언 앞에 위치하여 의미를 덧붙인다.
- ⑤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이는 용언이 존재한다.

12. 윗글을 참고하여 ⑦ ~ 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⑦ 오고 가다.
- 이번 생일에는 선물을 ⑧ 받고 싶다.
- 새로운 가수의 노래를 ⑨ 들어 보다.
- 친구가 아프니까 곁에 ⑩ 남아 주다.
-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⑪ 열어 놓다.

- ① ⑦의 ‘가다’는 본용언에 진행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 ② ⑧의 ‘싶다’는 본용언에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 ③ ⑨의 ‘보다’는 본용언에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 ④ ⑩에서 ‘남아’를 ‘남아서’로 바꾸어 쓰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⑩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 ⑤ ⑪에서 ‘열어’와 ‘놓다’ 사이에 ‘아주’를 넣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⑪의 ‘놓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10.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마지막 문단의 맥락을 고려해서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의인법을 사용한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어.

- ① 메모는 나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다.
- ② 메모하는 습관을 유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 ③ 메모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함께 커 가는 내 삶의 소중한 짹꿍이다.
- ④ 메모는 언제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환하게 밝혀 주는 등대이다.
- ⑤ 메모는 밝게 웃으며 상상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는 친절한 안내원이다.

13.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미 자질이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 구성 요소를 말한다. 대립되는 의미 자질은 [+]와 [-]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미 자질을 분석하면 의미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상하 관계에서 하위어는 상위어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상위어의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지며 상위어보다 의미 자질이 하나 이상 많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되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동일하다.

단어	의미 자질
사람	[+인간]
여자	[+인간], [+여성]
숙녀	[+인간], [+여성], [+성숙]
신사	[+인간], [-여성], [+성숙]
소녀	[+인간], [+여성], [-성인]

- ① ‘사람’의 의미 자질이 ‘숙녀’의 의미 자질에 포함되므로 ‘사람’은 ‘숙녀’의 상위어이다.
- ② ‘여자’의 의미 자질은 ‘사람’의 의미 자질에 [+여성]을 더 갖고 있으므로 ‘여자’는 ‘사람’의 하위어이다.
- ③ ‘소녀’는 ‘여자’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의미 자질의 개수가 ‘여자’보다 많다.
- ④ ‘신사’는 ‘숙녀’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을 이루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같으므로 ‘숙녀’와 반의 관계에 있다.
- ⑤ ‘소녀’는 ‘사람’과 두 개의 의미 자질이 대립을 이루므로 ‘사람’과 상하 관계에 있다.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재귀 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로, ‘저’, ‘저희’, ‘자기’, ‘당신’ 등이 있다. 한편 명사 ‘스스로’, ‘서로’는 재귀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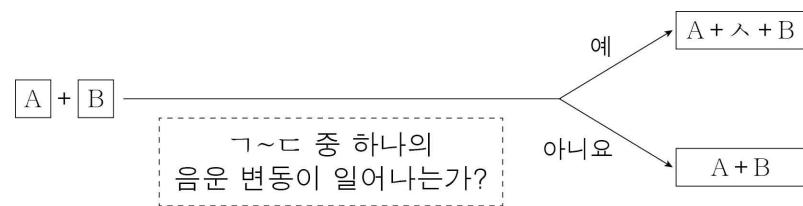
- ㄱ. 정우는 동생에게 자기 사탕을 주었다.
- ㄴ. 막내는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달려갔다.
- ㄷ.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저희끼리 속삭였다.
- ㄹ. 할머니께서는 손님을 당신께서 직접 맞이하셨다.
- ㅁ. 신입생에게 선배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① ㄱ: ‘자기’는 ‘동생’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② ㄴ: ‘저’는 ‘막내’를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③ ㄷ: ‘저희’는 ‘아이들’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④ ㄹ: ‘당신’은 ‘할머니’를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⑤ ㅁ: ‘스스로’는 ‘선배들’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처럼 쓰인다.

15.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과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고유어 A, B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A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탐구 과정을 참고하여 학습 과제를 탐구해 봅시다.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 ㄱ. B의 초성이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 ㄴ. A의 종성에 ‘ㄴ’ 소리가 생기는 경우
- ㄷ. A의 종성과 B의 초성에 각각 ‘ㄴ’ 소리가 생기는 경우

■ 학습 과제: a ~ e에 들어갈 올바른 표기를 탐구해 보자.

- 비 + 길 → a [비길]
- 위 + 쪽 → b [위쪽]
- 코 + 날 → c [코날]
- 이 + 몸 → d [인몸]
- 배 + 일 → e [밴닐]

- ① a: ㄱ에 해당하므로 ‘빗길’로 표기해야겠군.
- ② b: ㄱ에 해당하므로 ‘윗쪽’으로 표기해야겠군.
- ③ c: ㄴ에 해당하므로 ‘콧날’로 표기해야겠군.
- ④ d: ㄴ에 해당하므로 ‘잇몸’으로 표기해야겠군.
- ⑤ e: ㄷ에 해당하므로 ‘뱃일’로 표기해야겠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⑦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⑧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⑨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⑩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⑪ 함양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⑫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다.

효용이란 의사 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은우가 1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튀김과 초밥의 한계 효용>

번호	1	2	3	4	5
튀김	16	8	4	2	1
초밥	5	4	3	2	1

[A]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효용을 계산해 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효용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계 효용이 4로 일치한다.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⑬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⑭ 창출한다.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 형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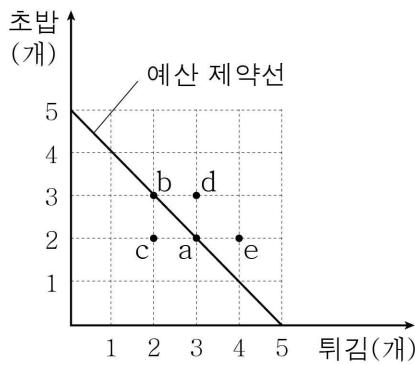
17. ⑦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 ②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 ③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 ④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 ⑤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18.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래의 그래프에서 a, b, c, d, e는 은우의 소비 선택 지점을 표시한 것이고, 예산 제약선은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을 이은 선이다.



- ①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 ②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동일한 예산에서 총효용이 작아진다.
- ③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효용이 작아진다.
- ④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효용이 커진다.
- ⑤ d,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는 d보다 총효용이 크다.

19. ⑨와 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⑨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 ② ⑩는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 ③ ⑨는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⑩는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 ④ ⑨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⑩는 소비 선택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 ⑤ ⑨와 ⑩는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 (가)의 ‘밀[⑧]’과 (나)의 ‘경제학자[⑩]’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부의 경제학 실험

[실험 내용]

-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 원씩 나눠 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함.
-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1/5$ 만큼씩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려 줌.

[실험 참가자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 비교]

-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
-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
-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 원, 기부하지 않은 1명의 효용은 26만 원

[실험 결과]

-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40~60% 정도 기부하였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음.
-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기부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음을 밝힘.

- ① ⑧는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 ② ⑩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
- ③ ⑧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⑩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이해하겠군.
- ④ ⑧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⑩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하겠군.
- ⑤ ⑧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⑩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군.

21. ⑨~⑩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⑨: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 ② ⑩: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름.
- ③ ⑪: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춤.
- ④ ⑫: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⑤ ⑬: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씨는 바빴다. 필목* 잇맺음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메고 장돌뱅이로 나섰다.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청라, 남포, 응천…… 인근에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다.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었다.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흰목 젖혀 가메 살여 볼텐디…… 그 방정맞은 놈으 까시미룡!”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 공장은 잘돼 나갔었다. 봉당에 들인 공장이 초협해 헛간마저 털어 들여 가며 쟈락찰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오래잖아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밀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돼 있던 거였다. 그리 돼 가는 판에다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말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 단지라는 것이 생긴다더란 소문이 왔다. 측량을 끝냈다더라더니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내를 메워 가고 있었다.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달린다는 기별이 잇달았다. ⑦ 직공으로 부리던 열다섯 명의 계집애들이 들고일어났다. 공임을 배로 올려 주든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든가 하라는 것이었다. 노임을 배로 인상해 가며까지 베텔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또 노임을 배로 올린대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평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동안 쟁의도 벌어졌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던 것이다. 새로 생긴 제과 공장과 전기 기구 조립 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씨네 소창직 공장의 두 달치 품삯에 맞먹고 있었다. 인건비의 앙등으로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직공들이 장래의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호이망성? 첫 미쳐두 곱게들 못 미치구…… 지집년덜이 알실을 때가 돼야서 시집이나 갓버리면 구만인디. 시집가서두 블어다 서방 공대 헐라간디? 그러구 무에던지 배워 두면 지술이지 지술이 워디 따루 있을까미……” 해 가며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랄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쳐 아물기도 전이었다. 황씨로서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또 한 번 날아와 그의 뒤통수를 갈겨 버린 것이다. 결정타였다.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걸 모른 체한 결과였다.

카시미론*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희오리쳐 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에 혼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카시미론의 위력도 날로 그랬다. 어느덧 황씨네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잣아졌다. 젖먹이 어린애의 기저귀감으로 밖엔 쓰임새가 없는 백소창이나 한 장 토막에 두서너 필 내는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급전된 것이었다.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 보기로 했지만 도리 없었다.

“찌끔 늦었던 겨, 다 시절 돌아가는 걸 보아 가메 눈치로 허야는 것을.” 황씨는 비로소 유행이란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크게 밀진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 푼 못 건진 채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이나 한탄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씨는, 암소를 키워 선출이에게 빚을 갚기로 한다. 황씨와 선출이는 함께 지극정성으

로 암소를 키우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배게 된다.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의 아내 고랫댁은 무심코 술지개미를 소 여물통에 놓아둔다. 이것을 맛본 암소는 광으로 들어가서 술독을 몽땅 비워 버린다.

고랫댁이 두 눈을 뒤집어쓰며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다. 이어 선출이와 수송이, 광서방, 철호가 머슴방에서 뛰쳐나왔다. 외양간이 비워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였다. “얼라, 엄니 소 워디 갔다?”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법석거리기 시작했다. “소가?” “소여……” “큰일 났네.” “소 죽이겄는디.”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내달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지개미로 목을 죽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내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질 못해 고삐 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 대가리와 뿔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곤 술 한 독을 다 먹어 치운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고랫댁 가슴 으론 쌀 한 말을 담아 거르면 보통 막걸리 옛 말이 났다. 그러니까 소는 줄잡아 막걸리 너 말 가웃치를 단숨에 먹어 치운셈이었다.

선출이와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다.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씨네 밭마당 가 우물 도량 건너 타작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었다.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펄펄 뛰다 나뒹굴고 비칠거려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 나자빠져 벼둥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다. 선출이와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 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올부짖기에도 지쳐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고, 선출이는 푸닥거리 끝난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마냥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 입힌 등신이 돼 있었다. 속으로 황씨가 생시 아니 몽유 중이기를 바랄 즈음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봄이 낫겠단 생각을 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모두들 넋 나가 하는 사이 누군가가 소리 질렀다.

“짚토매 점 가져와. 소 열어 죽겠다.”

누군가가 짚누리를 헐고 짚 몇 단을 가져왔다. 이후고 마당 한복판엔 때 아닌 모닥불이 화롱화롱 타올랐다. 또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시켜 게워 내도록 해야 산다고 양순이에게 맷돌에 녹두를 타 오도록 재촉했다. 부랴부랴 맷돌에 녹쌀 낸 녹두가루를 맹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이에 한 대야나 들어갔지만 워낙 의식 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엔 수의가 박사래도 소용없겠단 소리만이 찾아질 무렵 소는 잠이 들어 버렸다.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신한 게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날씨는 선달 날씨였고 열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는데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선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고 치솟곤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헌 명에 벗어던지듯하고 결국 가죽만 남기게 된 것이었다.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이 패씸한 놈아, 이 패씸한 놈……”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서, 고랫댁은 어서 날이 새어 소 배를 가르고 태종의 새끼를 꺼내면 푹신 고아 남편 몸보신이나 시키리란 생각과 함께

모닥불에 짚단을 더 얹었다.

밤이 깊어 가면서 ⑦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그믐 대목까지 곰국을 내먹겠다고 치부하면서도 곁으론 하늘 아래 이 동네 서고 소가 술 취해 죽었다는 건 듣고 보기 처음이라고 탄식이 거듭이었다.

- 이문구, 「암소」 -

* 필목 : 필로 된 무명천.

* 조시 : 무엇이 처음 시작됨.

* 소창작 : 무명실로 만든 면직물.

* 카시미론 : 캐시미어의 감촉을 재현한 저가 합성 섬유.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전해 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이 회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안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장면마다 서술자를 바꿔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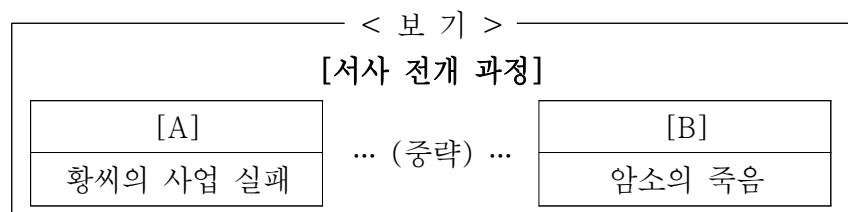
24. ⑦과 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①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같은 등을 조성하고 있다.
- ② ①은 ⑦과 달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③ ⑦은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 ①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④ ⑦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①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동기가 되어 특정 행위를 행하고 있다.
- ⑤ ⑦과 ①은 모두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씨는 소창작 직조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를 했다.
- ② 촌사람들은 카시미론이라는 새로운 물건에 마음을 빼앗겼다.
- ③ 고랫택은 암소가 송아지를 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④ 양순이는 외양간에서 암소가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했다.
- ⑤ 선출이는 암소가 술에 취해 날뛰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25.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고, [B]는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다.
- ② [A]는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회한이, [B]는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원망이 나타나 있다.
- ③ [A]는 장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과정이, [B]는 단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④ [A]는 문제 상황에 대한 중심인물의, [B]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변 인물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⑤ [A]는 세태에 대한 중심인물의 관심을, [B]는 공동체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
 ⑦ 연둣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련거림 같은 게 남아 있다.
 저 순연한* 벼포기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⑧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랠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네 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조건이라도 되는 듯.
 눈에 즐처럼 괴는 연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 나희덕, 「연두에 울다」 -

* 순연한: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나)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⑨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혼자였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친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⑩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⑪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째김질
 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끊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일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친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 북덕불: 짚이나 풀 따위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26.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소재의 나열을 통해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27. (가)의 '기차[A]'와 (나)의 '방[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② B는 A와 달리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다.
- ③ A는 화자가 애상감을, B는 자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A는 화자가 즐거움을, B는 고독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A와 B는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28.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⑦~⑪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연둣빛 벼들이 눈에 들어온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② ⑧: 햇빛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③ ⑨: 가족들과 떨어진 채 방황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⑩: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⑪: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① (가)의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먹는 것에서, (나)의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 있는 것에서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의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에서, (나)의 ‘바람은 더욱 세계’ 분다는 것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의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에서, (나)의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울음’이 터진 것에서, (나)의 ‘나를 이끌어 가는’ 운명으로서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한 것에서 정서적 변화의 계기를 알 수 있군.
- ⑤ (가)의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에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나)의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에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엽육 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광합성의 과정은 ① 명반응과 ②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한다.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에도 열린다.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암반응 과정은 캘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 탄소는 RuBP와 결합하며,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 이 결합으로 3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이 형성되고, 3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하며,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재생되어 이산화 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캘빈 회로라고 하는데, 캘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 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포도당 생산의 효율이 떨어진다.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 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3탄당임을 고려하여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②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면 식물은 잘 생장하지 못한다. 가령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공간인 엽육 세포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식물의 엽육 세포에는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한다. PEP와 이산화 탄소가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4탄당이 형성되는데,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탄당은 엽육 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 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분해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 탄소는 유관속초 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캘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C3 식물과 C4 식물의 캘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 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에 달한다. 이러한 C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목적은?
- ② C3 식물과 C4 식물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 ③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은?
- ④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 ⑤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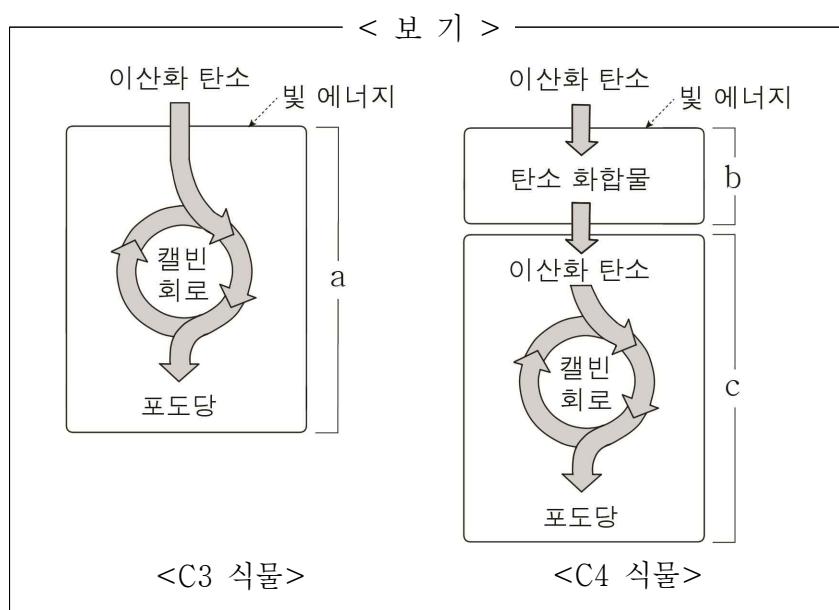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이산화 탄소를 필요로 한다.
- ② ㉡은 ㉠과 달리 산소를 활용한 물의 분해가 진행된다.
- ③ ㉠은 산소가, ㉡은 물이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된다.
- ④ ㉠은 물을, ㉡은 RuBP를 재생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 ⑤ ㉠과 ㉡은 모두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반응이 활성화된다.

32. ㉢의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 ②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열어지기 때문이다.
- ③ 기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④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 ⑤ 캘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 탄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3. <보기>는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b는 엽육 세포에서, c는 유관속초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 ② a에서는 3탄당이,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4탄당이 포도당 생성에 기여한다.
- ③ a와 b에서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 진행된다.
- ④ a의 캘빈 회로에서는 RuBP가, c의 캘빈 회로에서는 PE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한다.
- ⑤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④ 상이할 수밖에 없다.

형사 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⑥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 민사 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⑤ 적절하게 태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 달라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⑦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 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형사 소송법 제275조의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 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

다. ⑦‘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민사 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⑧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 대 49라면 원고의 손을 들어 주게 된다.

* 범인 :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단과 재단.

34.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돋고 있다.
- ② 규범 내용을 인용하여 특정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 ④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원칙과 다른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한다.
- ②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수평적 균형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형사 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 ④ 형사 소송에서의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민사 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당사자가 유리할 수 있다.

36. ⑦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② 재판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③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와 관련된 법규가 없다면 검사가 해당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겠군.
- ④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⑤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군.

37. <보기>의 ㄱ과 ㄴ은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ㄱ.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ㄴ.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A의 형사 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은 손해 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① ㄱ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ㄴ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되었군.
- ② ㄱ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ㄴ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하는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었겠군.
- ③ ㄱ에서는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ㄴ에서는 B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ㄱ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ㄴ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군.
- ⑤ ㄱ에서는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지만, ㄴ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겠군.

38. 문맥상 ① ~ 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서로 다를
- ② ②: 따져
- ③ ③: 견주어
- ④ ④: 나오지
- ⑤ ⑤: 믿을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⑦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랴

<제2수>

내 성이 계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띠집 : 풀의 일종인 띠로 지붕을 이운 집.

* 향암 :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나)

모계위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다. 밭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다. 아침에 그들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그 아래로 가고, 얼마 뒤에 해가 옮겨 가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다. 뒤쳐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잊거나 발꿈치를 상한 자도 계속 이어졌다.

계위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자가 있었다.

“저번에 그대는 동편에 있더니 이제 그대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라는 이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요?”

계위는 기가 막혀 ⑤웃으며, 세 번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말하던 자가 비로소 웁찔하더니 얼마 있다 말하였다.
“내가 지나쳤군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베옷 입고 겨울에 텔옷 입으며, 비 오면 도롱이 입고 별 나면 가리는 천성은 성인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님께서도 사람은 새,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고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또 그것을 지켜 끔찍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도 진정 그러합니까?”

계위가 말했다.

“그렇군요. 저는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일찍이 서유자에게 농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다 가을에 이르면 수확을 한다고 하니, 나는 이것으로 때를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릇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별이 내리쬐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고, 밭 갈고 씨 뿌리고 김매고 뿌리를 북돋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하늘에서 이루어 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힘을 다 쓰고 내 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나는 안으로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밖으로 외물에 휘둘리는 것이 없습니다.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 이해관계에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물에 파도가

[A]

일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탕수수 즙을 마시는 것 같으니 높은 평상에 얼음을 쌓아 놓는다고 해도 내 상쾌함을 알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히 얹매이겠습니까?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혹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텁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나와 달리한 것 이지, 내가 어찌 사람들을 떠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눈과 얼음 속에서 솜옷을 입고 있는 자도 여우 담비 텔웃을 덮어 주면 사양하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그늘을 싫어하여 도망쳤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人情)이 아닐 것입니다.

그대는 어찌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노닐며 태연하게 스스로 얻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투 다음에 야 그늘에 들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누가 무릎을 부딪치면서 발을 뻗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에게 한 발자국 남짓한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와 사람이 서로 거리게 하여 도적을 보듯 흘겨보며 행여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너르게 하여 주기를 바라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 합니다. 그대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김을 매야겠습니다.”

물어봤던 사람이 머리를 숙였고 부끄러운 낯빛이었다.

- 홍석주, 「전간대(田間對)」 -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점충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과장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의 해학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40. ⑦, ⑧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에는 죄대 없는 행위에 대한, ⑧에는 염치없는 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다.
- ② ⑦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⑧에는 원망하는 말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⑦에는 공감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⑧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다.
- ④ ⑦에는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⑧에는 자신을 조롱하는 말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다.
- ⑤ ⑦에는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위에 대한, ⑧에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말에 대한 질책의 의도가 담겨 있다.

41. (나)의 [A]에 나타난 ‘모계위’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리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하여 외부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군.
- ②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 ③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절기에 맞추어 남들보다 더 농사일에 힘써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 ④ 적절한 때를 알고 행동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 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에서는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 여기며 소박한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의 모계위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가 자연에서 ‘띠집’을 짓고 사는 것과 (나)의 모계위가 때에 따라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에서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으며 ‘그 남은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화자가 ‘하늘’이 자신의 ‘성이 계으’름을 알고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에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을 떳떳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의 모계위가 ‘눈과 얼음 속에서’는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 주면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타인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모계위가 ‘다른 사람과 다’투며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하다고 말한 것에서 타인을 해하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3~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제후국인 남만국이 명나라에 침범하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을 남만국에 안무사로 파견한다.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만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홍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정한다. 이때 남만 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그사이에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 하나이다.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나이다.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대인을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시나이다.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도 소자가 이를 차마 행하지 못하오리다. 소자가 심복으로 하여금 천리마 두 필을 준비하게 하였사오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옵소서**.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

서 안무사가 위로하여 말했다.

“내 어찌 그대의 인정 어린 마음을 잊으랴.”

그러고는 작별하였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하였다.

이때 서 원수가 길협을 놓아 보낸 뒤로 또 싸우러 나아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여 잊었던 고을들을 회복하고** 남만국의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위엄이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 안무사 잡아 오기를 기다렸다.

서 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돋우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表文)*을 천자에게 보낸 뒤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들어와 고했다.

“군영 바깥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와 서찰 한 통을 전해 달라고 하기에 바치옵니다.”

서 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 보니, 서찰은 이러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십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이라.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전하여 달아나 왔나니, 오신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 바빠 만나 보기 바라오.’

서 원수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바삐 군영의 문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 안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 서 원수가 부친을 한 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 깨무려졌다. 서 안무사가 서 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에는 6세 어린아이였거늘 지금은 엄연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리오. 서 안무사는 서 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하였다. 그리고 서 원수를 안아 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 주물렀다. 이윽고 서 원수가 눈을 뜨니, 서 안무사가 어루만져 위로하며 말했다.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없다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하였다. 서 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서 서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했다.

(중략)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 안무사를 보낸 뒤 곡 승상과 의논하였다.

[A] “아무 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이오. 서 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손무, 오기와 제갈량에 벼금가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로서 어찌 당할 수 있으리오. 이 때문에 서 안무사를 살려 보내어 은혜를 끼친 것이라오.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서 안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요, 서 원수는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구하여 줄 것이오. 경(卿)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귀순하시도록 간하여 보사이다.”

그러고서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잔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은 국운이 불행함이로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윗옷 한 쪽을 벗고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 문서를 쓰고서 통곡하였다. 명나라의 선봉 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中軍)에 아뢰니, 서 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하였다.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 문서를 올렸다. 서 원수가 항복 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부친 서 안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오.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올리니, 태자가 두 번 절하며 말했다.

“부왕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하려니와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질에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는 다시 살려 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자께 아뢰어 부왕의 목숨을 살려 주시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으리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서 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가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 기상이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천승(千乘)*의 국왕다움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아무렇지 아니한 듯이 말했다.

[B] “만왕의 죄악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 했었는데,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이로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가친(家親)*께서 십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자께 아뢰어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로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할지어다.”

태자가 거듭거듭 절하며 고마워하고 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 ‘내 서 안무사가 오늘날에 제일로 알았더니,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풍채가 갑절이나 더 낫도다.’

서 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귀순해 왔는데 태자는 인자한 데다 효성스러워 가히 남만의 왕이 됨 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랏일을 맡게 할 수 없으리니,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뢴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렸다.

— 작자 미상, 「쌍주기연」 —

* 표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 천승: 제후(諸侯)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르는 말.

* 가친: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4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객관적 근거를 들어 현실에 대한 기준의 판단이 바뀐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초월적 권위를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 ③ [A]는 신의에 어긋난 행동을, [B]는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할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다.
- ④ [A]는 타인의 힘을 빌려, [B]는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쌍주기연」은 서천홍이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고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 소설이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영웅과 적대국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 실천에 일조하는 것, 위기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른 것 등이다.

- ① 태자가 서 안무사를 볼모로 삼으라는 ‘부왕의 명’을 거역한 것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이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태자가 서 안무사를 ‘명나라 진영으로 가’도록 풀어 준 것에서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 실천에 일조함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서 원수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고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는 것에서 영웅적 활약상을 알 수 있군.
- ④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 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것에서 충효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 원수가 태자를 만왕으로 봉하여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뢴 것에서 천자와 제후 간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군.

4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 안무사는 재회 전에 서 원수에게 서찰을 먼저 보냈다.
- ② 서 안무사는 서 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차렸다.
- ③ 서 원수는 만왕을 잡기 전에 승전한 표문을 천자께 보냈다.
- ④ 태자는 패잔군으로부터 부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 ⑤ 태자는 항복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 원수에게 올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